

컬러TV, 우수 디자인 대통령상 수상
(주)금성사

금성사의 와이드 컬러 TV(모델명 : CNR-2994P)가 94년도 우수 디자인상품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제품디자인 개선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상공부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94 우수디자인상품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금성사의 컬러 TV는 절제된 선과 면의 적절한 조화로 고품질성을 추구하면서 실내분위기와의 조화를 유도한 제품으로 4원색 브라운관을 채용하여 순수 자연색상을 재현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덜었으며 극장화면과 같은 와이드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세계 최초로 APCVD 기술 개발
(주)금성사

금성사(대표 : 李憲祖)는 10억여 원의 개발비로 2년간의 연구 끝에 상압(일반공기압)에서 반응성 가스에 열에너지를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박막이 형성되는 APCVD 기술을 개발,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계 최고학회인 「SID(Society Information Display)」 정기총회에서 연구논문 발표했다.

APCVD는 기존의 플라즈마 증착방식인 PECVD에 비해 공정이 쉽고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 박막 생산성 및 수율이 향상되고 누설 전류 감소로 소비 전력이 크게 줄어드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이번 APCVD를 이용한 TET LCD 제조기술 4건을 국내 외에 출원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자사 TET LCD 파일릿 라인에 이 제조기술을 본격 적용, 시제품 제작에 나설 방침이다.

21세기 파이오니어 장기 해외연수단 파견
금성일렉트론(주)

금성일렉트론(대표 : 문정환)은 21세기 글로벌(Global) 경영체제에 대비한 인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1세기 파이오니어 과정”을 개발, 국내업계에선 처음으로 연구, 생산, 영업, 관리 등 전 분야의 관리자(과·부장급) 전원을 장기 연수키로 하였다.

동연수과정은 미국 및 일본의 우수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훈련, 비교문화 연구 및 초우량기업 Benchmarking 등의 현지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으로서 일반 해외 연수와는 다른 획기적인 국제인 육성과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동사는 1차로 각 사업장 관리자 30명을 선발하여 6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미국의 우수대학에 파견하

고, 오는 9월에는 2차 연수단을 일본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비트 MCU 공동개발
금성일렉트론(주)

금성일렉트론(대표 : 문정환)이 최근 독일 지멘스사와 8bit MCU 사업에 대해 협력기로 합의하고 제품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가전제품·자동차·정보통신 분야 등의 시스템 제어에 사용할 각종 8bit MCU에 대한 설계와 제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MCU는 CPU 및 메모리 소자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타이머·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장치 등을 하나의 칩에 통합시킨 집적회로로, 전자제품 분야는 물론 자동차·산업용 로봇 등의 소형·고기능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극산 대용량 교환기 STAREX-TX1 러시아 첫 개통
금성정보통신(주)

금성정보통신(대표 : 鄭壯皓)은 12만 회선급 대용량 전자 교환기 STAREX-TX1을 러시아 사마라시(구 쿠이비셰프)에 공급, 개통했다고 밝혔다.

STAREX-TX1은 동사가 세계화 제품으로 독자 개발한 대도시

용 대용량 교환기로 지난 해 국내 업계 최초로 베트남 하노이에 공급된 바 있으며, 러시아에 대용량 국산 교환기가 공급, 개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6월 러시아 사마라 지역의 통신운영사업체인 스브야즈인폼(Svyaxinform)사와 총 2만 1,000회선 규모의 교환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동사는 금년 5월 말에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러시아 체신부로부터 형식승인을 획득, 이번에 1차분 6,100회선을 개통하게 되었다.

러시아 볼가강 유역에 위치한 총 인구 330만명의 사마라 지역은 현재 150여 개의 해외 합작기업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해외 투자 유치가 활발하며 금융, 공업, 관광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의 교환기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대용량 교환기의 러시아 개통으로 국산 전전자 교환기가 러시아 대도시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동사는 이번 1차분 개통에 이어 95년 4월까지 증설분 15,000회선 및 신설분 9,000회선을 개통할 예정이며, 사마라 지역을 중심으로 볼가강 인근 지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지속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기방울세탁기 Z」 첨단
칼라 적용 시판
대우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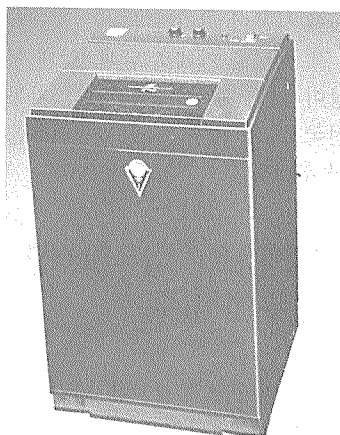
대우전자(대표 : 裴洵勳)는 신

세대 감각의 다양한 칼라색상을 채용한 5.5kg급 「공기방울세탁기 Z」 3기종(모델명 : DWF-5590D, 5590DC, 5590DG)을 개발, 6월 17일부터 시판했다.

이 제품은 개성이 강한 젊은 부부층 및 20대 전후 신세대를 잠재 고객으로 겨냥하여 5.5kg 급의 소형제품에 진주색 및 그린색, 회백색 등 다양한 침단칼라 색상을 채용하여 세탁기 패션화와 함께 구매자들의 선택의 폭을 대폭 늘렸다.

또 우리나라 주방의 공간 및 문의구조, 크기를 고려, 5.5kg급 국내 최소형의 컴팩트 사이즈에 플랫형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Slim형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특히 세탁기의 높이를 한국 여성의 표준키인 158cm의 주부가 사용시 세탁물의 수납이 가장 편리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사용상의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세탁기의 일부 부품과 재질을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채용했으며 폐기시 재활용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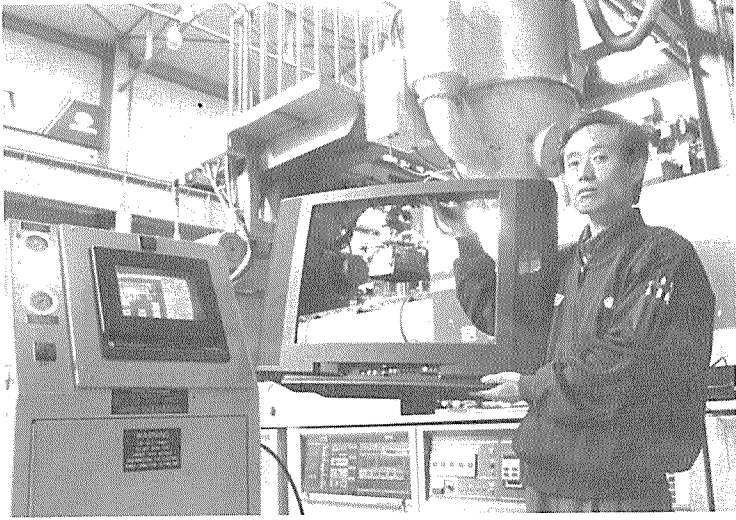


마다 재질명이 따로 표시되어 있고 세제사용량 감소와 공기방울에 의한 지속적인 산소공급으로 깨끗한 세탁수를 유지시켜 줌으로 수질재오염을 최대한 줄인 환경보호 설계방식을 적용시켰다.

**칼라TV 가스사출성형기술
국산개발 성공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는 CRT를 부착하는 칼라TV의 전면 캐비넷(Mask Front) 제조에 가스 사출 성형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캐비넷 본체에 20개의 스크루(Screw)를 사용해 별도로 조립하던 4개의 CRT 지지용 부품(Bracket CRT) 및 접착제로 부착하던 5개의 보조부품(Retainer Back) 등을 캐비넷 본체와 일체화시키는 데 성공, 전면 캐비넷의 강도는 2배 이상 향상되면서도 중량은 기존 2,420g에서 2,027g으로 약 10% 줄어들어 칼라TV를 더욱 튼튼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료비를 비롯해 사출비, 별도 부품비, 가공비 등 1 개당 총 제조원가도 기존 4,591원에서 3,405원으로 26% 절감하는 등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Gain Technologies가 개발한 가스 사출 성형기술은 금형 내에 제조원료인 용융수지(熔融樹脂)를 주입한 후 수지가 굳기 전에 부활성 기체인 질소 가스를 고압으로 주입하여 성형품 내에 중공부를 만드는 것으로, 강도 강



화 및 경량화, 생산성 향상 등은 물론 재래식 성형기술에 비해 수지 분포가 고르게 되고 정밀, 섬세한 부분까지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형상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치수, 안정성 등 품질향상과 디자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동사는 최근 이 기술을 적용한 유럽 수출용 25인치 칼라TV(모델명 : DTY-2595) 생산에 들어갔는데, 이 기술의 효과가 특히 큰 대형제품을 우선으로 칼라TV 전 모델에 확산시킬 계획이며, 세탁기를 비롯한 다른 제품에 대한 적용기술도 연구중이다.

CATV 컨버터 시판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 裴洵勳)는 송수신 자간의 통신이 가능한 쌍방향 CATV 컨버터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 회사 방송 시스템사업부가 9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국산화한 「DTWI 2000C」는 특정가입자 프로그램 수신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가입자 응답신호, 시청 리서치 정보 등 데이터 통신 기능이 부가된 것이 특징이다.

5개의 프로그램 예약기능을 가진 이 컨버터는 비밀번호를 이용, 프로그램별 구매와 취소가 가능하고 컨버터의 전 기능을 한글로 표시해 사용이 편리하다.

또 채널을 차례로 탐색, 실제 영상이 실린 채널만 저장하는 자동 선국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원을 끈 후에도 통신기능은 유효하다.

공간절약형 25" 칼라TV 시판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는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브라운관 외곽을 좁게 처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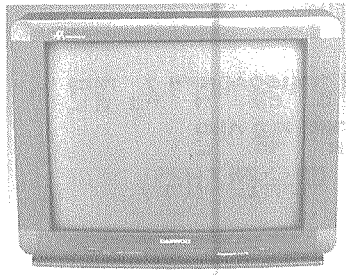
여 기존 동급 크기의 국내 칼라TV 중 가장 작은 외관사이드로 설치공간을 최소화한 25" 칼라TV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특히 AX 특수브라운관을 채용하여 X-Ray 등 유해전자파 방사를 50% 이상 감소시키고, 빗살형 필터 및 자동흑색 보정회로와 전과장에 의한 영상잡음을 제거하는 기능을 채용하여 화질의 선명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TV/VTR 겸용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리모콘과 유선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유선방송 수신회로를 내장하였고, 작동방법이 TV 화면상에 한글로 표시되는 기능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이 칼라TV는 일본통산성 '93 Good Design 상품전에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테스트를 거친 후 G마크에 선정된 제품으로 그 동안 일본 NEC에 대량으로 수출하여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이다.

동사는 일본에서 호평받은 이 모델을 주력 제품으로 삼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 수출시장에서도 고부가가치의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린 PCB 원판 개발 두산전자(주)

두산전자가 폐기시 유해화합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보호용 인쇄회로기판(PCB)을 개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그린 PCB로 불리는 이 제품이 難燃材로 열분해 때 유해화합물을 발생시키는 할로젠과 안티몬을 사용하는 대신 대체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가 용이하고 악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싸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장비 시장 본격 참여 보은전자통신(주)

최근 화면에 문자를 띄워주는 문자발생기를 비롯해 두개 이상의 영상신호를 동기시키는 시간축보정기(TBC), 원격조정기능을 가진 영상신호전환기, 화면분할기능 등 방송용 장비를 국산화, 방송국 및 프로그램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시판에 나섰다.

동사가 이번에 개발한 문자발생기는 윈도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50여 가지의 다양한 문자체와 1,600만 가지의 색상을 낼 수 있어 자연화상이나 그래픽 처리를 가능케 한 것이 특징이다.

10여 개월만에 개발한 시간축보정기는 디지털 방식의 디코더 및 인코더 회로를 채용, 신호노화가 없으며 무한대의 시간축보정이 가능하다.

또 화면분할기는 임의로 화면크리를 설정하고 16개 화면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테이프 없는 녹음기”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플래시(Flash) 메모리카드에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테이프 없는 녹음기(NDR : No Deck Recorder)”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95년에 상품화하기로 했다.

이 녹음기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기록매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구동장치가 전혀 없어 카세트 테이프 한 개 크기 정도로 소형, 경량화할 수 있고 디지털로 녹음, 재생하기 때문에 음질의 변화없이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어떤 녹음장치 보다도 탐색 속도가 월등히 빨라 회의 녹음용, 어학용 녹음기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동사가 개발한 이 녹음기는 같은 메모리 용량에 더 많은 음성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음성신호 부호화(Coding) 알고리즘(Algorithm)으로 CELP(Code Excited Linear Prediction)을 이용하고 있어 8M바이트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사용했을 때 2시간 30분까지 녹음이 가능해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보다 2배 이상 긴 녹음시간을 갖는다.

CD-OK, 미 전자공업협회(EIA) 로부터 “명품”으로 선정 삼성전자(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영상 노래반주기 CD-OK(모델명 : KCD-1)가 미국 전자공업협회(EIA)의 명품선정위원회에 의해 “올해의 명품”으로 선정되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신제품이 세계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되었다.

명품선정위원회(Panel of Judges)는 동사의 CD-OK가 CDROM 기술에 기초를 두고 이에 컴퓨터의 음원 기술은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와 동화상 압축기술인 MPEG(Moving Picture Image Coding Expert Group) 등을 응용해 12cm CD 한 장에 노래를 최대 3,000곡, 컬러사진 화면을 4,000컷 수록하는 수준높고 독특한 기술력을 보여주어 광기술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올해의 명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자공업협회는 산업디자인, 전자관련 언론계, 전자 엔지니어링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의 전문가들로 “명품선정위원회”를 구성, 대학 및 연구소와 기업들로부터 2,000여 점의 제품을 출품받아 혁신성(Innovation), 디자인, 생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이 중 세계적인 명품을 올해의 명품으로 선

정, 시카고 하계 전자쇼의 명품전시관에 전시한다.

멀티미디어 삼성전자(주)

삼성전자가 기존 「하이버네이션」 PC에 CD롬드라이브와 사운드카드를 기본 내장한 멀티미디어 컴퓨터 「매직스테이션」 시리즈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부터 판매에 돌입한 「매직스테이션」은 486SX-33급(모델명: SPC 7600 PVW 225T)과 486 DX2-50급(모델명: SPC 7600 PVW 242H) 등 2개 모델로서 기본메모리는 모두 8MB이며 64MB까지 확장할 수 있다.

CD롬 드라이브는 AT버스 방식으로서 2배속형이며 사운드카드는 음악전문업소 수준의 가라오케 음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5세대인저 비디오 LDP 첫 시판 삼성전자(주)

삼성전자가 지난 해 세계 최초로 비디오 CD 재생 가능한 LDP(제품명: 뉴LDP)를 개발, 시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디오 CD 5장을 동시에 탑재하여 디스크의 교환없이 장시간 영화를 볼 수 있는 비디오 CD 플레이어(모델명: DVC-500RK)를 6월 중순부터 시판한다.

이 제품은 CD, CDG(Comp-

act Disc Graphic), 비디오 CD 등의 광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즐길 수 있으며, 5장의 디스크를 동시에 장착하여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 디스크를 갈아 끼워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였다. 비디오 CD의 재생시간이 최대 74분인 반면에 영화 한 편은 보통 90분에서 120분이어서 한 장의 디스크에 영화 한 편을 모두 싣기가 어려워 기존의 비디오 CD 플레이어는 디스크를 갈아 끼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디지털 신호처리(DSP)를 대폭 채용하여 홀, 무대, 극장 등의 3가지 모드를 선택해 음향을 즐길 수 있다. 이 "3-모드 DSP"를 이용해 사용자는 영화를 볼 때는 극장모드, 노래를 할 때는 무대모드, 뮤직비디오를 볼 때는 홀모드 등으로 맞춰 현장감있는 음향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중남미에 "바이오 TV" 수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金光浩)가 세계 최초로 원적외선 원리를 이용해 개발한 바이오 TV가 국내 TV 시장을 강타한데 이어 중남미 바이어들로부터 수주가 쇄도, 본격적인 수출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에 세계 최초로 바이오 TV를 개발해 3월말부터 멕시코, 파나마, 칠레 등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출에 들어갔는데, 29인치 대형 최고급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시작 3개월만에 2,000대를 수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바이오 비전”이란 제품명을 갖고 현지 시장을 공략하게 될 이 제품은 PIP(화면속의 화면)기능, 증착음 수퍼우퍼 채용 등 기능이 다양하고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가격도 일본 등 선진제품과 대등하여 경쟁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현지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위해 바이오 비전이 건강과 문화생활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원적외선에 대한 효능과 바이오 TV 원리를 담은 VTR 테이프를 제작해 배포하고 일반 TV와 바이오 TV의 효능 비교를 위해 비교실연을 하는 한편 유력 신문에 신문 광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TFT-LCD 컬러 필터 생산 삼성코닝(주)

삼성코닝(대표:金益明)이 첨단 영상표시장치인 TFT-LCD용 컬러필터 사업에 참여기로 하고 6월 말 공장건설에 착수했다.

동사는 기존 수원공장내에 총 600억원을 투입,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컬러필터 공장을 건설하고 내년 6월부터 10인치급 제품을 연간 100만장씩 생산기로 했다.

계열업체인 삼성전자가 개발한 것을 인수받아 양산체제에 성공

이번에 공장을 건설하게 된 TFT-LCD용 컬러필터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일본업체만 생산, 수입에 의존해 왔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코닝은 이 제품을 생산, 현재 TFT-LCD 공장을 건설중인 삼성전자와 금성사, 현대전자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회사측은 TFT-LCD의 핵심부품인 컬러필터를 국산화, 국내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업체의 TFT-LCD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직계열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비디오 시장 진출 새한미디어(주)

새한미디어(대표:李在寬)가 홈비디오 시장에 진출한다.

동사는 홈비디오 메이저인 영국의 CIC와 손잡고 오는 7월부터 월 15편의 홈비디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프로덕션과 연계, 음반·영상물 판매를 대행키로 하는 한편 자체브랜드 프로그램도 제작키로 했다.

지난 2월 영국 버진사와 합작계약을 맺고 음반 유통사업에 진출한 동사는 이로써 음반·영상물 포괄하는 종합소프트웨어 사업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LED 프린터 공급

신도리코(주)

신도리코(대표:우석형)가 소비자가격이 99만원대인 LED방식의 프린터 새제품(모델명 LP-4037)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판한다.

신도리코가 판매하는 「LP-4037」은 1,500×300 DPI 고해상도로 고품질 출력을 지원하는 PQET 기능과 오존발생제거 및 초절전의 그린기능을 추가했다.

분당 5매의 출력속도와 1.5MB 용량의 메모리를 지닌 이 제품은 한글명조·고딕, 한자명조, 영문 40종 등 다양한 폰트를 지원한다.

미국에 컬러TV 수출 아남전자(주)

아남전자(대표:金柱淵)는 미국 하즐라스사와 연말까지 4,100만달러 상당의 컬러TV를 수출키로 최근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동사가 이번에 수출 계약을 맺은 컬러TV는 오디오 비디오 입력 단자와 우선방송 수신회로 등을 내장한 14, 20인치 2개 모델로 지난 2년간 하즐라스사를 통해 미주 지역에 컬러TV를 수출해온 것에 대해 현지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 이번에 대량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사는 4월 독일 켈레사와 1,500만 달러 어치의 오디오 수출 계약을 맺은데 이어 이번에 컬러TV 대량 수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 수출 목표(6,500만달러)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컬러LCD 전용공장 준공 오리온전기(주)

오리온전기(대표:嚴吉鎔)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노트북 PC용 컬러 액정표시장치(LCD)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지난 6월 3일(금) 구미공단 내 오리온전기 제3공장 현지에서 준공 기념식과 함께 가동에 들어간 이 공장의 제품생산 능력은 9.5인치 노트북 PC용 컬러 STN-LCD 연간 84만개, 기존제품은 TN 및 중소형 STN-LCD 연간 1,200만개 규모이다.

컬러 STN-LCD의 경우 그동안 국내 영상표시 업계에서 개발품과 시제품이 나오긴 했으나 본격 양산체제를 갖춘 것은 동사가 처음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이 제품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연간 수입 대체 효과는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운관에서 평판표시 소자로 이행해 가는 세계 영상표시 산업의 기술과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사가 총 투자비 910억원을 들여 준공한 이 공장은 연건평 1만 2,400평에 공장동 4개 층, 사무동 7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공장은 LCD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건물 전체가 내외부 충격에 의

한 진동폭을 최소화시키는 미진동 설계구조와 슬라브 공법으로 시공되어 고품질 첨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사는 지난 '92년 8월에 (주)한독의 LCD 부문을 인수, 본격적으로 LCD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지난해 3월에는 일본 도시바(Toshiba)와 흑백 및 칼라 STN-LCD 기술제휴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전용 공장 준공으로 생산하게 되는 노트북용 칼라 STN-LCD는 최근 세계 LCD 시장에서 가장 폭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칼라 LCD 분야를 이끌 TFT-LCD 생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민자당 박세직 의원, 주한 베트남 구옌 푸 빈(Nguyen Phu Binh) 대사 등 주요 관계인사와 기술제휴선인 일본 도시바 사또(佐藤文夫) 사장, 그리고 김준성 회장 등 대우그룹 관계자가

참석했다.

천안공장 착공 (주)인켈

(주)인켈(대표:崔錫漢)은 의정부공장 매각으로 새로 건설키로 한 천안공장의 기본계획을 관계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음에 따라 이달 중순 건축 및 에너지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빠르면 7월 초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사가 착공에 들어갈 천안공장은 두정공단 안에 5,500평 규모로 건설되는데 컬러TV·리시버앰프·MD·비디오 CDP 등 연산 50만대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게 된다.

동사는 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천안공장에 물류합리화를 위한 첨단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산업 본격화 (주)지원산업

(주)지원산업(대표:李憲榮)이 환경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 토양오염방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저유탱크를 개발, 판매에 돌입했다.

국내 최초로 미국 환경산업전문업체인 프라스틸사와의 기술제휴로 개발한 이 저유탱크(지원레트론탱크)는 지하 기름 저장탱크로 누유(漏油)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국제규격인 UL 규격을 획득하기도 한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2만~5만 리터급 등으로 정형화돼 기름을 효율적으로 저장 또는 계량할 수도 있다.

또 기존제품이 스틸 위에 방청 페인트와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데 비해 이것은 스틸 위에 알루미늄과 FRP 등으로 2중 코팅, 토양 오염현상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초고속 복사시스템 개발 코리아 제록스(주)

코리아제록스(대표:文大源)가 분당 100장(A4)을 복사하고 제본까지 자동처리하는 첨단복사시스템(모델명:제록스 510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록스 5100」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1분당 A4 100장을 복사하고 복사기 중에서 유일하게 끝



마무리 기능을 지닌 피니셔를 장착해 복사물의 분류 및 제본이 신속하게 일관 자동처리 될뿐 아니라 터치스크린 방식을 채택해 조작이 간편한 점이 특징이다.

또 고속복합 자동원고 이송장치의 장착으로 전산용지 연속복사기 원고이송, 규격 및 두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원고를 모두 고속으로 이송해 복합 자동처리 된다.

중국에 PCB 공장 설립 코리아씨키트(주)

코리아씨키트(대표 : 宋東孝)가 국내 PCB 업계 처음으로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한다.

동사는 중국 대항구 토지개발공사와 대지 6,500평을 임대 계약하고 400만달러 상당의 자본금을 투입, 천진에 PCB 생산공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그 동안 국내공장에서 사용해 온 일반장비와 생산시설을 중국 천진공장으로 이전, 단면 PCB와 양면 제품 등 저가 보급제품 위주로 월 1,500~20,000㎡를 생산, 현지 시장과 동남아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동사는 이번 중국공장 설립을 계기로 반월공단에 있는 생산라인을 다층 PCB 위주에서 초박판, 파인패턴 고기능 제품으로 전환, 생산능력을 30% 이상 높였다.

보이스 모뎀 TMD-144VF2 개발 태일정밀(주)

태일정밀(주)에서는 데이터, 팩스 송수신 및 음성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이스(Voice) 팩스 모뎀 TMD-144VF2를 개발했다.

Data Mode로는 최대 14,400 [BPS]의 전송속도를 지원하며 CCITT V.32bis, V.32, V.23 V.22bis, V.22, V.21 그리고 BELL 103, 212A와 호환이 되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FAX Mode로는 최대 14,400[BPS]의 전송속도를 지원하며 V.17 V.29 V.27ter와 호환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Voice Mode로는 자국 및 타국의 음성 녹음 및 재생의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S/W에서 자동응답 기능, 단순응답기능, 음성사서함 기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동호식별(Call Discrimination) 기능을 지원하여 팩스 및 보이스 신호를 자동 식별하여 관련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 및 사무자동화의 실현에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

서울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학술정보시스템 수출 한국컴퓨터(주)

한국컴퓨터(주)(대표 : 한홍섭)는 최근 서울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학술정보시스템을 미국 탠덤사의 AP 등록을 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학술정보시스템은 서울대 도서관과 공동으

로 '89년 9월부터 지난 해까지 약 5년여에 걸쳐 개발한 도서관 관련 소프트웨어 패키지이다.

이 제품은 도서관 업무의 자동화와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기능, 전국 대학 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자체업무의 자동화는 대출시스템, 수서시스템, 목록시스템, 연속간행물시스템, 장서관리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기능은 검색시스템, 정보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상호대차시스템, 분담목록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컴퓨터가 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지금까지 외국제품 일변도로 사용되어 온 국내 도서관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의 국산품 대치뿐만 아니라 해외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초형 팩스 개발 화승전자(주)

和承電子(대표 : 曹泰鉉)가 최근 국내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값싼 팩시밀리인 「까맥스 HS-20」을 개발, 6월부터 내수판매 및 수출에 적극나섰다.

이 제품은 360mm×280mm×75mm 크기에 무게가 2.58kg으로 국내 최소형이며, 내수 판매가격은 39만원으로 LCD(액정표시판)를 갖춘 국산 팩시밀리 중 최ю가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동사는 미국과 유럽지역에 금년 중 35만대를 공급키로 이미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추가 수출물량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까맥스 HS-20」은 LDC 판외에 원고 정면송신, 전화와 팩스의 자동 구분, 50개의 단축 메모리 다이얼, 팩스통신 중 전화통화 예약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오토체인저 개발
현대전자(주)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360장의 비디오 CD를 내장, 연속재생이 가능한 업소용 영상반주시스템(일명 JUKEBOX)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사가 총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에 성공한 이 제품은 가로 46cm, 세로 31.5cm, 높이 70cm 크기로 오토체인저(모델명: CD비전 P6000)와 컨트롤 기능을 가진 커맨더(모델명: HCM-P400C), 동화상을 복원재생하는 MPEG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2cm 크기의 비디오 CD 360장을 장착, 최대 6,000곡의 노래와 동화상 440시간의 연속재생이 가

능하다.

특히 국내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로보틱메커니즘 방식을 채택, CD의 자동교환으로 무인화가 가능하며 2대의 비디오 CDP를 내장, 5초 안에 원하는 곡을 재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소용제품의 신뢰성 측정요소인 고장 발생시간(MTBT)이 4,800시간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2배이상 길며 최대 6대의 오토체인저를 병렬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란주점 및 노래방 등 업소에서 시스템 확장이 용이 하도록 했다.

자동판매기 공업협회 창립

한국자동판매기 공업 협회가 정식 출범했다. 삼성전자와 금성산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회원 7개사와 중소기업 일반회원 6개사 등 13개 회원사가 참여한 한국자동판매기 공업 협회는 지난 7월 1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가진 창립 총회에서 임원진을 선임하고 사업 계획을 확정,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이희중 금성산전 사장, 상근전무이사에 박재권씨, 감사사에 서울기전과 삼경산업이 선임됐다.

자판기협회는 창립 첫해인 올해 자판기 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 작업과 조사연구 사업, 국제협력 및 수출진흥사업, 기술개발촉진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확정했다.

